책과 함께하는 국회도서관 작은음악회

“딱딱한 국회 이미지 책과 음악으로 녹일 터”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경직되고 엄숙한 분위기였던 국회도서관 뜰이 화사한 봄볕으로 물들었다.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여의도 국회도서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작은음악회’에서 도서관을 찾은 이용객들은 물론 여의도 윤중로 벚꽃 구경을 나온 시민들은 국회도서관 안뜰에서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발길을 돌려 도서관을 찾았다.

금년 ‘국회도서관 작은음악회’는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다. 2005년부터 작년까지 2회에 걸쳐 열렸던 작은음악회 행사를 확장해 국회도서관 일반인 출입구 앞에 ‘책잔치 마당’을 마련하고 〈책과 함께하는 음악회〉로 변모한 것. 국회도서관 측은 “도서관 벽을 허물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책을 통한 다양한 접근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의 이같은 취지는 열린 국회, 문화 국회를 지향하는 최근 분위기에 힘입은 바 크다. 문용주 국회도서관장은 “대민서비스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의 책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회도서관으로의 유입을 자연스럽게 이루기 위한 문화행사”라고 전했다.

난타, 남성 팝페라 그룹 라 스페란자 연주, 여성 일렉퓨전그룹 샤인의 공연, 중국 기예단 공연 등으로 이루어진 음악회와 총 10개 출판사가 도서판매 부스를 마련하고 참여한 ‘책잔치마당’은 시민들의 관심을 붙들었다.

특히 도서관 일반인 출입구 앞에서 열린 ‘책잔치 마당’에는 신간도서를 10% 할인하여 판매하면서 도서관을 찾은 이용객들이 부담 없이 책을 펼쳐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부스를 개설한 한 출판사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구매했다”고 전했다. 행사 첫날 부스 평균 판매율이 20여 권을 웃돌았다.

도서관은 또 〈책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가 열리는 이틀 동안 도서관 내부 참관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마련하고 별도의 회원증이 없이도 도서관 곳곳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5살, 3살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은 문수진 주부는 “딱딱한 느낌을 전하던 국회도서관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오랜만에 한번 들러봤는데 이런 잔치가 벌어져 봄나들이가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도서관 홍보협력과 노우진 과장은 “국회자료도서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경직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국회의 활발한 문화행정과 열린 국회를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회도서관 역시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행사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국회도서관은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매년 그 규모를 넓혀갈 방침이다. 벚꽃놀이를 즐기러 여의도를 방문하는 전 서울시민들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행사 내용을 추가해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